

IBKS Spot Comment

건설/부동산

조정현

02) 6915-5660

controlh@ibks.com

[건설/부동산]

Aramco LTC 발주 계획 취소에 따른 국내 건설사 영향은?

Aramco LTC (Liquid-to Chemical) Plan 재검토 발표

사우디 Aramco는 본토 Ras Al Khair에서 개발 예정인 정유 및 화학 프로젝트 건설 계획을 취소했으며, 아시아 지역 확장에 초점을 맞춰 투자 재검토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40만 배럴(b/d)의 원유를 화학제품 전환 생산 목적으로 설계(FEED) 진행 중이었으며, 대안이었던 Jubail 이전안도 보류되었다. 중기 프로그램(사우디 내 개발) 발주도 재검토 중인데, 예정된 프로젝트는 Yanbu와 Jubail에 있는 기존 Yasref, Samref 및 Sasref Refinery에 LTC(liquid-to-chemicals) 단지 3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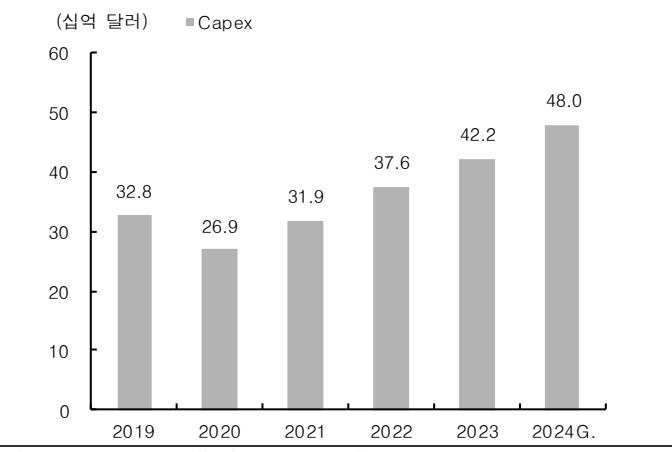
동사의 결정은 1) 장기 수요를 지지해 줄 수 있는 Off-taker(중국, 최종구매자) 확보, 2) 공사비 급증에 따른 프로젝트 신규 발주 금액 부담 분산, 3) 중국-사우디 화학제품 증설에 따른 경쟁 완화 목적이라 판단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Energy transition 'Engineering' 역량에 집중할 필요

이번 결정은 주요 대형건설사들이 제시한 연내 ~ 내년도 상반기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사우디와 중국의 협력 관계가 깊어질수록, 국내 건설사들의 Legacy 공종의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라이센서의 의미가 퇴색된 Legacy 공종의 경우, Off-taker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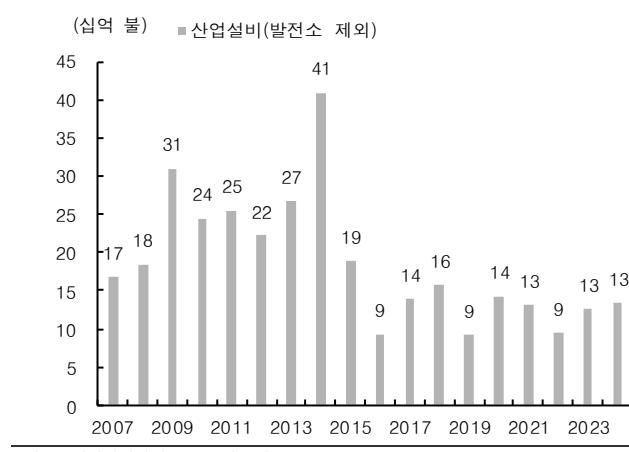
국내사들은 장기 관점에서 해외건설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Energy trasition 라이센서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Engineering 역량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다.

그림 1. Aramco Capex 가이던스



자료: Bloomberg, IBK 투자증권

그림 2. 국내 건설사 해외산업시설 수주 금액(발전소 제외)



자료: 해외건설협회, IBK 투자증권